



#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지지 오버덴처로의 보철 수복

박은영 |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고령화 시대가 됨에 따라 치과 임상자들은 무치악 환자의 치료에 보다 많이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총의치로는 기능과 심미면에서 불만족스럽고, 특히 심하게 흡수가 진행된 하악 무치악에 있어 그 유지력 저하라는 문제에 대면하게 될 때 임플란트 치료가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Implant overdenture는 총의치와 비교하였을때는 (1)골흡수 방지 및 안면의 심미성 유지, (2)보철물의 안정성과 유지력 향상, (3)저작효율 및 교합력증가, (4)발음 향상, (5)감소된 의치 크기라는 잇점을 가지며,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과 비교하였을때는, (1)비용 절감 및 예후 불량한 임플란트 식립의 필요성 감소, (2)심미적(입술지지), (3)관리 및 수리 용이, (4)야간 비기능 운동의 방지를 위한 철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1996년 Jemt 등의 임플란트 지지 오버덴처에 관한 임상연구에서 하악에서의 성공률은 임플란트에서 94.5%, 보철물에서 100%를 보였고 상악에선 각각 72.4%, 77.9%를 보였다. 1989년 Misch 등도 1% 이하의 임플란트와 보철물 무실패를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성공적인 임상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오버덴처에 대한 증가 추세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여러 가지 치료옵션을 가능하도록 해주었으나 치조골 흡수 정도와 임플란트 매식 개수 등의 조건에 따라 그 선택이 중요하고 어렵다. 또한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위해 가철성 의치의 움직임을 고려한 의치 설계 및 상부구조 설계 등이 새로운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 교실에서는 무치악 환자에 대한 tissue bar와 ERA attachment를 이용한 임플란트 오버덴처 보철수복 증례를 발표하고자 한다.